



“새해 첫 새벽, 고된 일 해주신 분들 감사”

- 한덕수 총리, 1월 1일 새벽 1시 출근한 환경공무원 132명에 내복 선물
 - 10만 인파 뒷정리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전날 경찰청장에 “작업중 교통통제 충분히 유지하라” 당부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현충원 참배에 앞서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에서 작업중이던 종로구청 환경공무원들을 찾아가 “새해 첫날 새벽부터 추운데 고생 많으셨다”고 노고를 치하했다.
- 전날 밤 보신각~세종대로 일대에서는 10만 인파가 몰린 가운데 △제야의 종 타종 △신년 카운트다운 △K팝 콘서트 행사가 진행됐다. 판데믹 이후 최초로 마스크 없이 진행된 새해맞이 행사였다. 종로구청 환경공무원 132명은 행사 뒷정리를 위해 평소보다 4시간 빠른 새벽 1시에 출근해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했다.
- 한 총리는 31일 새해맞이 행사 사전 안전점검에 앞서 “제야의 종 타종이 끝난 뒤 교통통제가 너무 일찍 풀려서 환경공무원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위험하게 청소를 마친 경우가 왕왕 있었다”는 보고를 받고,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“환경공무원들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올해는 교통통제를 충분히 유지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- 이에 따라 경찰은 1일 새벽 7시까지 종각~세종대로 일대의 교통통제를 유지하고, 차량이 우회하도록 유도했다.

□ 한 총리는 이날 “더울 때는 더운대로, 추울 때는 추운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고생하는 직군 중 하나가 환경공무원”이라면서 “국민들이 오랜만에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남보다 일찍 나와서 고된 일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”고 했다. 한 총리는 종로구청 환경공무원 전원에게 발열 내의를 선물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실	책임자	과 장	이화원	044-200-2698
		담당자	사무관	연희정	044-200-2718

